

IFS 국가 정책 제안

「글로벌 산업 허브」 전략: 피크 코리아를 넘어 경제 영토 확장의 길로

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윤제용 교수
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손인주 교수
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박광기 소장
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
서울대 기술경영·경제·정책전공 곽정원 연구원



1

배경: 대전환의 시대와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

픽크 코리아와 기존 모델의 한계

- 성장 정점 진입과 산업 공동화 가속: 인구 감소·내수 침체·잠재성장률 하락으로 '픽크 코리아'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, 바이든 행정부의 IRA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'미국 우선주의' 통상 압박으로 '비자발적 해외투자'가 급증하며 제조업 기반 붕괴와 일자리 소멸이 가시화됨
- 수출주도·초격차 모델 유효성 약화: 보호무역 심화와 후발국 추격으로 수출의 '낙수효과' 단절이 심화되고 자원 한계·기술 격차 축소로 단일 기술 우위에 의존한 초격차 전략만으로는 국가 생존을 담보하기 불충분함

대전환의 시대: AX와 GX의 이중 파고

- AI 대전환(AX) 충격: 전 산업의 AI화로 기존의 노동 집약적 제조 공정과 아날로그 관리 방식으로는 생존 불가능한 '디지털 생존 경쟁' 시대가 도래함

- 녹색 대전환(GX) 압박: RE100·CBAM 등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화되는 반면, 국내 재생에너지 여건은 열악하여 철강·석화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 산업의 생존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음

국가 전략의 재설계: 새로운 좌표와 성장 방정식

- 지경학적 좌표 재설정: 선진국 기술 장벽과 신흥국 저가 공세 사이의 '위기의 중간자'에서 벗어나 양쪽을 연결·조율하는 '글로벌 결절점(Node)'이자 '산업 허브'로의 역할 전환이 시급함
-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: 국내에 갇힌 제로섬(Zero-sum) 성장을 탈피해 경제 영토를 세계로 넓히고, 글로벌 거점과 국내 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'확장과 고도화'의 새로운 성장 방정식 도입이 필요함



2 비전 및 5대 미션: 경제·사회 5대 난제 해결을 통한 질적 도약

비전.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을 지향하는 「글로벌 산업 허브」 대한민국

- 선진국의 기술과 신흥국의 시장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결절점이자 산업 허브로서, 경제 영토의 확장과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 지향점임

미션 1. 저성장 탈피: 에너지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

- 에너지 전환 가속화: RE100·CBAM 등 탄소 규제와 에너지 안보 리스크에 대응해 에너지 다소비 공정을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높은 국내외 거점으로 재배치하고, 저탄소 경쟁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신산업을 육성함
- 미래 신산업 집중 투자: AI 컴퓨팅·바이오·우주항공·기후에너지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, 정부의 AI 대전환(AX)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조와 연계해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함

미션 2. 경쟁력 회복: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과 초격차 유지

- 공급능력 극대화: 국내 생산 기지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 시장 점유율과 산업 영향력을 확대함
- 초격차 재정립: 단순 기술 우위를 넘어 글로벌 표준 수립과 공급망 전체를 통제·관리하는 '시스템 초격차' 역량을 확보해 대체 불가능한 리더십을 구축함

미션 3. 양극화 극복: 대·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상생 생태계

- 글로벌 가치사슬(GVC) 편입: 과밀 경쟁에 갇힌 중소·중견기업이 대기업(앵커) 해외 진출 시 동반 진출토록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육성함
- 포용적 성장: 제로섬 내수 경쟁을 탈피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 한계 기업 숨통을 틔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마련함

미션 4. 고용문제 해소: 제조 인력 업그레이드와 서비스직 전환

- 일자리 고부가가치화: 단순 제조 인력은 해외 관리자·기술 멘토로 파견하고, 국내 인력은 기획·R&D·금융 등 지식서비스 기반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재편함
-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: 일자리 질적 고도화로 제조업 기피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, 은퇴 숙련 인력의 노하우를 해외 거점 자원으로 활용함

미션 5. 소멸위기 대응: 지방 거점 글로벌 허브화와 국토 균형 발전

-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: 포항(철강)·거제(조선)·여수(석화)·울산(자동차) 등 산업 도시를 R&D·설계·마케팅·솔루션을 총괄하는 '글로벌 혁신 클러스터'로 격상시켜 육성함
- 지방 소멸 대응: 지역 내 양질의 고급 일자리와 글로벌 정주 여건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토대를 구축함

3

핵심 전략: 「경제 영토 확장」과 「국내 산업 고도화」를 통한 「글로벌 산업 허브」 도약

전략 1. 경제 영토의 글로벌 확장

- 단순 상품 수출형 통상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를 이식하고 상대국의 난제를 해결하는 '산업 파트너십 통상'으로 대전환함

1-1. 對 선진국 전략: 통상 장벽 우회 및 국가 아젠다 솔루션 제공

- K-제조업 서비스화: 약화된 제조업 기반·공급망 안보·인프라 재건 등 상대국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주는 '패키지 솔루션'을 제공함(예: 美 조선업 재건 지원 MASGA 프로젝트)
- 통상 장벽 전략적 우회: 보호무역(IRA·CBAM) 장벽이 높은 시장 내 직접 생산 거점을 구축해 규제를 무력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함
- 기술·표준 동맹 강화: 현지 R&D 센터와 연계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의 양산 능력과 결합해 상호보완적 기술 동맹을 구축함

1-2. 對 신흥국 전략: 산업 생태계 이식 및 제2 내수시장 확보

- 글로벌 거점 플랫폼 구축: 배터리·EV 진출 지역을 주거·행정이 결합된 '국가 차원 산업도시'로 격상해 수출하고, K-국제산단 조성을 통해 상대국과 경제 통합을 이루고 '제2 내수시장'을 확보함
- RE100 산단 구축: 재생에너지 부국에 탄소 다배출 공정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장벽을 우회하고 원가 경쟁력이 높은 '그린 생산기지'를 확보함
- 앵커기업 활용 선단형 진출: 중소·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반 이주시켜 부품·소재 밸류체인을 패키지로 이식하고 소부장 시장 보존 및 글로벌화를 촉진함

전략 2. 국내 산업의 고도화

- 범용·양산 공정은 해외로 이전하고, 기획·R&D·핵심 공정 등 최상위 역량은 국내에 집중해 지식·첨단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생태계로 근본적으로 혁신함

2-1. 對 선진국 연계 전략: 글로벌 혁신 허브 및 지식 서비스 육성

- 글로벌 혁신 허브 조성: 수도권을 빅테크 HQ·국제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집적된 '아시아 경제 수도'로 육성하고, 세계적 자본·인재가 모이는 '혁신 지대'를 조성함
- 5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: 해외로 확장된 제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치사슬 최상단 산업을 집중 육성함
 - ① 지식IP산업: 주력산업 노하우 기반 설계·감리·기술 라이선싱 사업화
 - ② 첨단산업: 차세대 반도체·AI·바이오·우주항공 상용화 R&D 및 실증
 - ③ 금융산업: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및 '국제개발금융' 허브 구축
 - ④ 문화산업: K-콘텐츠 IP 활용 글로벌 문화 사업 확장 및 소프트파워 강화
 - ⑤ 관광산업: 한류 및 교육·산업 시찰 연계한 에듀투어·MICE 산업 육성

2-2. 對 신흥국 연계 전략: 공급망 컨트롤 타워 및 구조 재편

- 공급망 컨트롤 타워: 생산 거점을 총괄하는 본사 기능을 국내에 집중해 GVC를 통제하고, 단순 생산을 넘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두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성장 동력(AI·기후테크) 육성의 주도권을 확보함
- 국내 공급과잉 해소 및 그린 리포지셔닝: 노후 설비 신흥국 재배치로 탄소·에너지 부하를 저감하고, 기능 이전 후의 국내 생산 거점은 핵심 공정·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생산 기지로 재편함
- 지방 거점 첨단 실증 허브화: 부울경(제조혁신)·충청권(과학기술) 등 지역 거점을 단순 생산이 아닌 AI·로봇 결합 '첨단 제조 실증 단지'로 고도화해 기술 우위를 유지함



4

이행 기반: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안전장치

1. 제도 혁신: 지속가능한 전환과 자본 순환 시스템

- 지속가능한 전환: 산업 공동화 충격 완화를 위해 해외 진출 속도를 조절하고, 잔류·리쇼어링 기업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·세제 혜택을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함
- 국부 선순환: 해외 투자가 국부 유출로 끝나지 않도록 거점 수익의 국내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고, 신성장 동력 재투자 시 세제 감면 혜택을 강화해 선순환 고리를 확립함

2. 산업 생태계 보호: 마더 팩토리 혁신과 공급망 결속

- 마더 팩토리 혁신: 국내는 첨단 공정·R&D 담당 ‘마더 팩토리’, 해외는 ‘양산 기지’로 이원화하고, 잔류 중소·중견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도록 스마트 팩토리·AX 비용을 전폭 지원함

- 가치사슬 연계 및 기술 안보 강화: 앵커기업의 국내 소부장 기업 장기 공급 계약에 세제·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망을 결속하고, 원천 기술 무단 유출 방지 시스템 및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함

3. 거버넌스: 범국가적 통합 추진 체계

- 국가 주도 전략 기획: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상대국 정부 협상(인허가·세제·투자 보장)을 국가가 주도해 교섭력을 보완하고, 지정학 데이터 기반 최적 진출 거점 선정으로 리스크를 사전 관리함
- 민·관·금융 통합 협의체: 정부·산업계·금융권이 참여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수행함

[표 1] 「글로벌 산업 허브」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

구분	對 선진국 (기술·표준 동맹)	對 신흥국 (생산·시장 거점)
경제 영토 확장 (Global Expansion)	① 기술 및 표준 선점 •미·EU 내 생산 거점 구축으로 통상 장벽 우회 •현지 R&D 센터와 연계한 R&D-상용화 파트너십 강화	② 한국형 산업 생태계 이식 •아세안·인도 등에 한국형 산업단지 패키지 수출 •한계 제조 설비 이전 및 제2 내수시장 확보
국내 산업 고도화 (Domestic Advancement)	③ 글로벌 혁신 허브 조성 •글로벌 빅테크 HQ 및 첨단 R&D 센터 유치 •세계적 자본·인재가 모이는 ‘혁신 지대’ 조성	④ 공급망 컨트롤 타워 •해외 생산기지에서부터 개발 이익 및 배당 수익 환수 •기획·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중심지 역할